

2022년
기획연구

Part. 4

한국 사회 유산기부 논의 지형 변화 과정에 관한 연구



책임연구자 **노법래** 세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저자 프로필



책임 연구원

노 범 래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세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학력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

주요경력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원
서울대학교, 전북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등 시간강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편집위원장

연구실적

- 2022,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내 자원봉사활동 변화의 실제-온라인과 오프라인 활동의 시계열적 추세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주저자)
- 2021,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지형 변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 외환위기 이후부터 코로나19 상황에 이르기까지 언론에 노출된 “식발”, “투신”, “분신” 사건 내용에 대한 텍스트 마이닝을 중심으로(2021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 주저자)
- 2021, 저출생, 고령사회의 심화에 따른 한국사회의 생애주기별, 지역별 사회적 위험의 분포에 관한 연구(국회미래연구원, 책임연구원)
- 2021, 2000년대 이후 의제지형 변화에 관한 빅데이터 분석 연구: 차별과 혐오 의제를 중심으로(서울시 NPO 지원센터, 책임연구원)

요약

본 연구는 2000년 이후 한국사회에서 유산기부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자료 정제 과정을 거쳐 약 20년간 유산기부를 다룬 기사문 1,435건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본 연구는 연구의 이론적 맥락으로서 관련 문헌에 대한 검토를 통해 유산기부 문화의 확산과 관련된 주요 사회적 흐름을 사회 전반의 성숙, 기부 문화의 성숙, 가족주의 전통의 극복으로 정리했다. 자료 분석 단계에서는 토픽모델링과 추출된 토픽의 시계열적 변화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분석 결과 한국 사회의 유산기부 논의에는 앞서 언급한 주요한 사회적 흐름이 전반적으로 함께 포착되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모금 단체의 역할과 기업의 사회 책무성 실현과 관련된 움직임이 유산기부 문화 확산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살폈다. 한편으로 시민 일반에 유산기부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실천이 이뤄지고 있음도 볼 수 있었다. 가족주의 전통은 한국 사회에서 유산기부 확산과 관련해서 중요한 제약으로 보이며, 관련된 갈등을 중재하는 노력이 향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키워드: 유산기부, 모금단체,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가족주의, 토픽모델링, 기사문 분석

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사회 유산기부 논의의 확산과 논의 지형 변화의 실증적인 관찰이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첫 번째는 유산기부라는 기부의 독특한 한 형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다. 유산기부가 기부 총량에서 차지할 수 있는 잠재적 비중을 고려할 때 유산기부를 둘러싼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기부 문화 확산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두 번째는 유산기부 논의의 확산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한국 사회의 변화를 읽는 것이다. 여기에는 기부 문화 확산과 관련된 직접적인 측면과 이와 관련성을 지니는 사회 전반의 변화를 포함한다. 유산기부가 일반적으로 가족에게 할당될 수 있는 몫을 활용해 기부자 사후에 활용된다는 독특성과 이를 위해서 기부금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 등이 요청된다는 점에서 유산기부 논의의 확산 저변에는 다양한 사회적 변화가 수반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유산기부 논의의 확산과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2000년부터 연구 시점인 2022년 6월까지 “유산기부”를 검색어로 수집된 기사문을 대상으로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하였다. 국내 유산기부 연구는 사회적 관심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한 편인데, 소수 수행된 바가 있는 연구도 개인 단위 연구인 경우가 많았다. 이들 연구들도 대부분 유산기부에 대한 인식이나 의향을 검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유산기부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회 변화를 짚기에는 한계가 있다. 유산기부의 흐름을 사회 전반 수준에서 검토한 국내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그 탐색적 시도로써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크게 세 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 단계는 유산기부 논의의 사회적 확산이 지니는 의의를 이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사회적 수준에서 유산기부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본격적으로 규명한 연구가 많이 없는 상황이므로 본 연구는 개인 단위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한 함의점을 바탕으로 이를 사회적 차원으로 연결하는 시도를 하고자 한다. 연구의 두 번째 단계는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 관찰로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사문을 중심으로 논의 지형 변화를 검토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 가운데 토픽 모델링(topic modelling)을 수행할 것이다. 연구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론적 검토와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유산기부와 관련된 한국 사회의 변화를 정리하고 기부 문화 확산과 관련한 몇 가지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2. 유산기부의 사회적 맥락

사회 전반의 수준에서 유산기부의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유산 기부의 성격에 대한 논의와 유산 기부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단위 연구의 결과를 참고하여 유산 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확산이 지니는 의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에서 유산기부에 대한 논의의 전개는 기부 문화는 물론 여러 사회 변화와 관련이 되어 있다. 본고는 기존 연구를 참고하여 유산기부에 대한 논의 확산이 사회 전반의 성숙을 드러낸다는 점, 기부 문화의 확산의 한 결과라는 점, 그리고 한국 사회의 특수성에 따른 의의로 대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사회 전반의 성숙을 드러내는 지표

기술 발전에 힘입은 경제 성장과 생산력의 전반적인 증대에 따른 물질적 자원 확보 수준의 지속적인 향상 속에서도 현대 사회는 여전히 빈곤 문제와 심화되는 불평등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환경 오염, 기후 변화와 같은 글로벌한 문제는 국경을 넘어 인류 전반에 걸쳐 거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른바 자본의 책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고,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이끈 거부들을 중심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기부 행위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부자의 입장에서 최종적인 형태의 기부 행위이면서, 기부 규모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유산기부에 대한 관심 또한 커지고 있다. 따라서 유산기부에 대한 일련의 관심 증가는 경제 성장 그 자체에 대한 맹목적인 추구와 더 많은 소비를 더 나은 삶으로 치환한 자본주의 가치에 대한 반성과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희망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제 성장과 생산력의 증대 과정에서 환경 오염, 불평등과 같은 문제가 심화된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질 문명의 발달은 생존에 대한 문제로부터 해방을 가져온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일

정 수준의 경제적 번영은 사회 전반의 윤리적 측면의 각성을 유도하는 중요한 배경이 될 수 있다 (Friedman, 2006). 따라서 일정한 경제적 성취를 이룬 사회에서는 행복한 삶과 더불어 어떤 죽음이 좋은 죽음인가, 그리고 그 방식이 어떻게 다음 세대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 또한 늘어 나게 된다. 왜냐하면 죽음의 양태는 자신의 삶을 드러내는 궁극적인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유산기부에 대한 관심은 생의 마감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사후에 다음 세대가 더 나은 사회로 이행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결단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죽음을 맞이하려는 개인의 도덕적 열망이 반영된 행위로 볼 수 있다.

요약하면 유산기부에 대한 관심은 거부들을 중심으로 자신이 축적한 부에 대한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반성적 인식을 반영한다는 점과 함께, 일반 시민 전반에 걸쳐서도 바람직한 죽음에 대한 윤리적 관심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사회 전반의 성숙을 드러내는 지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 유산기부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면, 그것은 한국 사회가 경제 성장의 맹목적 추구와 소비의 최대화와 같은 물질주의적 가치 지향을 넘어서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

2) 기부 문화의 성숙

유산기부와 관련된 기부 문화의 성숙은 기부 행위 자체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 및 경험 축적과 기부 문화 활성화의 촉진자인 모금 단체의 역할 증대와 신뢰 확보라는 측면, 그리고 관련 제도의 정비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를 순서대로 논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유산기부에 대한 관심 증가는 기부 자원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실질적인 의미가 있으면서, 기부 문화의 성숙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유산기부에 대한 기존의 개인 단위 연구에서 이전 기부 경험은 중요한 예측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자신의 노동과 시간에 대한 기부라고 볼 수 있는 자원봉사 경험 또한 유산기부 의향에 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강철희, 2009). 따라서 유산기부에 대한 관심 증대는 사회 구성원 전반에 걸쳐 기부 경험이나 기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개인 단위에서 유산기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유산기부는

일반적인 기부 형태에 비해서 까다로운 절차를 수반하거나 어렵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심리적 거리는 유산기부 의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 그러나 실제로 유산기부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관련 절차를 까다롭다고 인식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한다(Sargeant et al., 2006). 유산기부 의사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소 가운데 하나는 유산기부에 대한 안내와 설득의 경험 유무로 알려져 있다(Wilberforce, 2001). 따라서 유산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는 모금 단체의 소개와 적극적인 설득 노력과도 관련될 수 있는 것이다.

유산기부는 장기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계획되어 진행되는 기부이며, 기부자 사후에 기부금에 대한 운용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기부자에 의한 직접적인 모니터링이 어려운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기금 운용에 대한 모금 단체의 역량과 신뢰성에 대한 인식은 유산기부 의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존 개인 단위 연구에서 모금 기관에 대한 신뢰와 역량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유산기부 결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Weipking et al., 2012).

끝으로 개인 단위에서 수행된 연구에 따르면 유산기부와 관련된 법제도적 환경은 유산기부 결정에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Pelozo & Steel, 2005). 따라서 유산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는 기부 문화의 제도적 성숙을 드러내는 세제상 혜택과 같은 제도 변화와 궤를 같이 할 수 있다.

3) 한국 사회에서의 특수성에 따른 의의

유산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한국 사회의 특수한 맥락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한국 사회는 시대에 따른 변화는 있으나 전통적으로 개인의 자유보다는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 더 강조되는 '가족주의적 습속'이 강한 특성을 보여왔다(송재룡, 2008). 따라서 이런 '가족주의 습속'하에서는 개인의 자유는 물론 그것에 근거한 자발적인 공동체 기여에 대한 노력 또한 제약이 있을 수 있다.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정체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상황에서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역할은 부차적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가족주의 습속"을 직접적으로 다룬 것은 아니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기부에 있어 역할 갈등을 더 강하게 경험하며 기부 행

위에 대한 의사가 위축됨을 보고하고 있다(Wiepking et al, 2012).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 유산기부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면, 그것은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주의가 약화되고 그 약화된 틈이 공동체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채워지고 있음을 드러내는 하나의 신호로 이해할 수 있다. 자신이 축적한 부의 전부 혹은 일부를 자신의 가족이 아닌 사회 전반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희생한다는 결단은 한국 사회의 변화를 읽음에 있어 큰 의미가 있다.

3. 분석 방법

1) 분석 자료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유산기부”를 검색어로 웹에서 수집된 기사문 전수를 활용하였다. 수집 과정에서 중복되는 내용이나 관련성이 떨어지는 기사문은 제거하였다. 아울러 기사문의 텍스트가 짧은 경우도 분석에서 제외했다. 본 연구에서는 글자수가 200자 미만의 단신은 또한 분석에 활용하지 않았다. 이로써, 분석에 활용된 기사는 총 1,435건이었다. 수집된 텍스트 정보 가운데서 분석 목적상 불필요한 특수 기호 등은 제거하고 형태소 분해를 진행하였다. 형태소 분해 결과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형태소 분해 과정에서 참조하는 사전의 갱신을 반복하는 과정이 있었다. 분해된 단어 가운데 분석에는 명사만을 취하여 활용했다. 텍스트 데이터의 수집 및 정제 과정은 Python 3.6 환경에서 수행하였으며, 형태소 분해는 “KoNLP” 라이브러리(박은정, 조성준, 2014)의 관련 함수를 활용했다.

2) 텍스트 처리

유산기부를 둘러싼 한국 사회의 논의 지형과 그 변화를 살피기 위해서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토픽 모델링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분석은 크게 두 단계로 구성이 되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토픽 모델링을 수행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관련해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잠재 디리클레 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 방식을 활용하였다. LDA는 텍스트에 분포된 단어 빈도를 활용하여 하나의 텍스트가 잠재 토픽에 속하는 정도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Blei et al., 2003).

LDA는 잠재 구조를 다루는 분석 기법의 특성상 모형(토픽의 수)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토픽의 수를 선택하기 위해서 특정 주제를 구성하는 토픽에 대한 기존의 이론을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본 연구를 포함하여 토픽 모델링에서 다루는 주제는 토픽의 수를 사전에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다만, 선택된 모형에 따른 분석 결과가 기존의 이론이나 현실에 타당하게 부합되는지 검토하는 과정은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토픽을 결정하는 최적 모형의 선택에 있어 수리적 절차를 거치고 그 결과를 앞서 진행한 문헌 검토 결과와 견주어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을 거치고자 한다. 여기서 최적 모형의 선택에 있어 가장 간명하고 활용하기 쉬운 모형 적합도 평가 지표는 조화평균(harmonic mean)을 들 수 있다(Griffiths & Steyvers, 2004). 본 연구에서는 토픽 수의 변화에 따른 조화평균의 변화를 관찰하는 시뮬레이션 과정을 통해서 최적 모형을 도출하고자 한다. 도출된 토픽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하나의 단계로서 본 연구는 수리적으로 도출된 토픽 간 의미상 거리와 실제 토픽 내용 사이의 관련성을 검토하는 과정을 포함하고자 한다. 토픽 간 의미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t-분포 확률적 임베딩(t-distributed stochastic neighbor embedding, T-SNE)을 활용한다. T-SNE는 차원 축약(dimension reduction)의 한 방법으로서 고차원의 자료를 저차원의 공간에 투영하여 분석에 포함된 개체 간 거리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며, 결과를 검토하기 위한 시각화 방식도 다양하게 제시한다(Van der Maaten & Hinton, 2008). 본 분석에서는 기사문이 각 토픽에 속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감마값(gamma)을 활용하여 차원 축약 결과를 2차원의 평면상에서 다루고자 한다. 끝으로 문

현 검토 결과를 토대로 연관성이 높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토픽을 묶어서 토픽 구조를 정리한다.

분석의 두 번째 단계는 약 20여 년간 토픽의 비중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관찰하는 것이다. 토픽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기사문이 하나의 토픽에 속하도록 조정하였다. LDA를 통해 도출된 개별 텍스트의 감마값(γ)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각의 토픽에 속할 확률값 혹은 텍스트에 담긴 토픽의 비중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의 한 기사문이 최대 감마값을 지니는 토픽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

분석 결과 제시의 간명성을 위해서 3년 단위로 시점을 묶어서 시기별 토픽 구성의 변화를 검토했으며, 여기에는 교차분석을 활용했다. 시기별로 봤을 때, 확률적으로 유의미하게 규모가 큰 토픽을 중심으로 변화를 추적하였는데, 교차표 내의 관측치에서 드러나는 확률적 유의미성은 하나의 셀에 속할 기댓값과 실제 관찰된 사례 규모 간의 차이를 활용하는 피어슨 잔차(Pearson's residual)를 통해 검토했다. 개별 토픽의 변화에 이어서 유사한 주제를 담고 있는 토픽을 묶은 토픽 그룹 수준에서 규모의 상대적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연도별로 한 번 더 검토하여 시기에 따른 토픽 변화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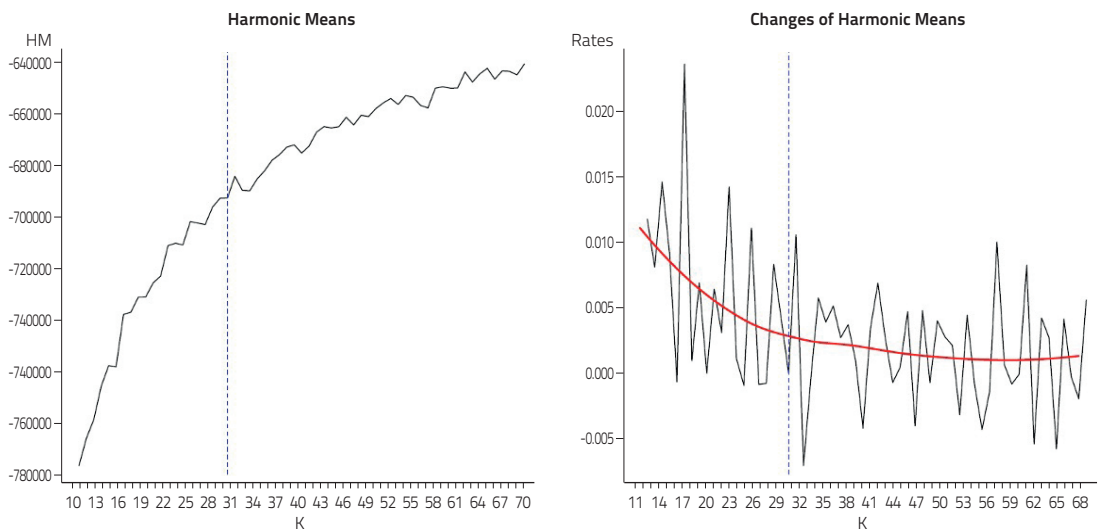
4. 분석 결과

1) 토픽 구조

〈그림 1〉은 모형(토픽 수)의 변화에 따른 조화평균의 변화를 시뮬레이션한 결과이다. 좌측의 그림은 조화평균의 변화를 제시한 것이며 우측의 그림은 이전 모형 대비 조화평균의 변화 정도를 비율값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림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토픽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지표의 개선은 이뤄지지만 그 정도가 체감하는 지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모형의 설명력과 간명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지표 개선이 둔화되는 지점을 최적 모형으로 정하고자 한다. 유산기부와 관련된

토픽의 수 자체를 엄밀하게 도출하기보다는 유산기부에 대한 논의 구조를 살펴보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상 이와 같은 선택에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된다. 시뮬레이션 결과 토픽의 수가 30일 때 최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모형을 최종 선택하였다.

〈그림 1〉 모형(토픽 수) 변화에 따른 조화평균의 변화



〈그림 2〉는 추출된 30개 토픽을 구성하는 상위 30개 주요어를 제시한 것이다. 주요어의 기준은 LDA 분석을 통해서 도출되는 토픽의 고유성에 영향을 미치는 단어의 고유한 기여 수준을 의미하는 베타값(beta)을 기준으로 정렬하였다. 그림에서 막대그래프의 길이가 베타값을 의미하며 참고를 위해 단어의 나열은 빈도수를 기준으로 하였다. 빈도수와 베타값은 일정 수준 상관성을 지니지만 단어가 특정 토픽의 형성에 기여하는 것이 특히 높은 빈도에 의하거나, 혹은 다른 토픽에는 없는 고유성이 예외적으로 큰 경우는 약한 상관을 보일 수 있다.

토픽 별 주요어의 구성을 검토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토픽의 내용을 초기에 검토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토픽8의 경우 “아버지”, “어머니”, “부인” 등 가족과 관련된 단어가 주요어에 다수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토픽이 가족과 관련한 이슈를 다루고 있음을 유추하게 해준다. 또 다른 예로 토픽16은 “할머니”, “위안부”, “추모” 등이 주요어로 있음을 통해서 위안부 피해

자의 기부와 관련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베타값을 활용한 주요어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토픽의 성격을 일부 추정할 수 있지만 탐색적인 성격이 강하며 특정 토픽을 전형적으로 반영하는 텍스트의 실제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토픽 이해에 더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다.

<그림 2> 토픽별 주요어의 분포



기사의 제목을 상위 5개까지 나열하였다. 이때, 기사문의 내용이 유사한 경우 하위 순번의 기사문을 제시했다. 기사문의 특성상 유산기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도 인사 동정, 도서 소개, 문화 행사 등 분석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토픽이 추출될 수 있는데, <표 1>에서 “문화/도서/인사 동정”으로 명명된 토픽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 토픽은 분석 목적상 필요가 없으므로 별도로 정보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추후 분석에서도 제외하였다. 각 토픽별로 부여한 “토픽 이름”은 감마값이 높은 기사문의 내용과 각 토픽을 구성하는 주요 키워드(높은 베타값)의 구성을 고려하여 부여하였다. LDA에 따른 문서 분류에서 토픽 번호나 제시 순서는 연구 목적상 큰 의미가 없다.

<표 1> 토픽 추출 결과

토픽	토픽 이름	Gamma	제목
1	아너소사이어티	0.3383	‘고바우’ 김성환 화백, 아너소사이어티 가입
		0.3096	[매경이 만난 사람] '사랑의 열매' 췌신 이동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0.2719	“자녀에게 좋은 유산 물려줘야죠”
		0.2164	‘아너소사이어티’ 최초父子회원 탄생
		0.2157	“승자는 세상에 신세 많이 진 사람… ‘빛’ 값으며 살아야”
2	국내 기업인 기부	0.3654	‘부의 세습’ 주력한 재벌과는 다르다… ‘부의 환원’ 나선 4050 창업자들
		0.2769	자수성가 부자 통 큰 기부… 재벌 富대물림과 달랐다
		0.2069	[한경플라자] 존경받는 부자가 되는 길
		0.1924	[김화진 칼럼] 아산 정주영의 나눔 철학
		0.1878	직장인 기부 늘었지만…가진 자들의 ‘노블레스 NO블리주’
3	삼성 사회 환원(1)	0.5382	[경제]이건희 재산 사회환원 잘 되고 있나
		0.4049	삼성 ‘8천억 사회헌납’ 마무리
		0.3988	<현대차-삼성 사회공헌방안 공통점과 차이점>(종합)
		0.2685	이건희 유산 상속 내용 28일 발표…사회환원 계획 공개
		0.2470	미술품 최대 2조·사재 1조 등 사회 환원 나설 듯

4	시민 기부(1)	0.4253	기초생활수급자 김화규 할머니, 전세금 사후기증 약속
		0.3802	〈사랑 그리고 희망 - 2009 대한민국 리포트〉전재산 쪽방 전세금도... 장기·안구도... “받은 것 돌려줄 뿐”
		0.3523	“돈 많으면 도둑만 들어, 다 주고 가야지”
		0.3301	돈 없어 공부 포기한 동생 생각나... · · · 남동생 유산 기부한 할머니
		0.3076	[행복한 나눔 릴레이]〈8〉 유산 기부 대구 김용만 씨
5	좋은 죽음	0.5205	〈기획탐구〉 노후불안 ④ 최고의老테크는 노후 가치관 정립
		0.2846	미리 경험하는 죽음이 그대를 편안케 하리라
		0.2659	영정사진 찍고 ‘죽음’을 이야기한 청년들의 결론
		0.2466	‘성공을 유산으로 남기는 법’... 백만장자 신앙인이 쓴 ‘나눔의 성공학’
		0.2297	“더 많이 나누고 아름답게 떠나야죠”...‘이별학교’ 수업 현장
6	희망가게	0.5705	아모레퍼시픽 “창업 지원해드려요”...‘희망가게’ 전수창업지원사업 공개 모집
		0.4297	‘희망가게’ 50번째 희망씨앗을 심다
		0.3960	‘희망가게’ 새 창업주 모십니다
		0.2178	아름다운재단, 1% 기금 99%로 쓴다
		0.2019	‘아름답고 훈훈한 유산’ 50억
7	상속 제도 정비	0.3270	베이비부머 82% “죽으면 화장해달라”
		0.2831	[오늘과 내일/천광암]문제 많은 상속 · 증여세 손볼 때다
		0.2495	‘GDP대비 기부액 비율’ 美의 3분의 1
		0.2425	[아침을 열며] 고령사회와 상속제도 정비
		0.1980	유산기부 활성화 위해 재산의 10% 기부자 상속세 감면 등 혜택 공론화 시작
8	유산기부 관련 가족 갈등(1)	0.4247	[최효찬의 문사철(文史哲) 콘서트] 돈으로 키운 자식, 아버지를 돈으로 봐
		0.2326	자식 없어 다행이라는 백만장자의 속마음
		0.2179	백만장자 모, ‘괘씸죄’ 세 딸에 유산 5천원
		0.2074	“평생 농사로 일군 재산 좋은 일에 써야죠”
		0.1937	“癌 퇴치에 써달라” 서울대 의대에 노부부 80억 익명기부

9	문화/도서/인사 동정	.	.
10	문화/도서/인사 동정	.	.
11	문화 기부	0.5179	'이건희 컬렉션' 광주·전남에 근현대 미술작품 '51점' 기증(종합)
		0.4645	[박현주 아트 클럽]소변기' 뒤상전 서울 오게 한 '기증의 힘'
		0.2799	[정준모의 영화 속 그림 이야기] 위대한 컬렉터를 만든 나눔과 베풀기
		0.1883	국립한국문학관 도서 기증자와 자산 기부자에게 감사패 증정
		0.1725	김영섭 성대 교수, 한예종에 클래식 음반 1만장 기증...'문화 기부'
12	문화/도서/인사 동정	0.4804	위대한 문학에서 배우는 돈에 대한 7가지 교훈
13	대학 기부(1)	0.3466	날인 없는 200억대 재산 헌납 유언장 '연세대 기부' 이뤄질까
		0.2299	'120억 기부' 유언, 날인 없어 '무효' 판결
		0.2212	대법 "날인 없는 유언장 무효"...연대, 3년 분쟁 패소
		0.1884	연세의료원, 유산 기부자 클럽 '세브란스 오블리주' 론칭
		0.1694	재야 사학자故마만주 선생 유족, 동국대에 2억원 기부
14	문화/도서/인사 동정	.	.
15	문화/도서/인사 동정	.	.
16	위안부 피해자 기부	0.5699	〈광복70년〉 대구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8월 개관
		0.4829	"위안부 역사관, 평화의 전당으로 만들겠다"
		0.4048	유산 기부하고 눈감은 日 위안부 피해 할머니
		0.3568	고 김순악 할머니, 1억826만원 유산 기부
		0.2762	위안부 恨의 역사, 한국만 '찬밥신세'
17	유산기부 관련 가족 갈등(2)	0.5989	'가깝고도 먼' 존엄한 죽음...내 가족이라면 어떤 선택할까?
		0.5384	서민들도 상속 분쟁 늘어... 10건중 1건은 1000만원이하 소송
		0.5269	대중화된 상속분쟁, 불효자 뭇도 인정...유언장이 효력을 가지려면?
		0.4833	[맞춤 재테크]재산상속 유언장 작성 어떻게
		0.4173	동거녀·복지재단에 30억 유산 남긴 前남편..."애들 뭇 받을 수 없을까요"

18	유산기부 소개	0.2570	[위크엔드]기부 세제지원 뭐가 있나...
		0.2444	새로운 형태의 기부문화 '유산기부' 조금씩 늘어
		0.2254	이색 기금 등장...기부 문화 확산
		0.2150	[시론/박태규]'유산기부' 풍요한 사회 만든다
		0.2144	[국회 입법 전망대] 기부문화와 세제혜택
19	문화/도서/인사 동정	.	.
20	삼성 사회 환원(2)	0.6138	미술계도 놀란 컬렉션 기증..의료공헌에만 1조원
		0.5417	유례없는 삼성家の 사회환원
		0.4963	고(故) 이건희 회장 “유익한 일에 쓰겠다” 13년前 약속대로...의료사업에 1조
		0.4951	감염·희귀병 퇴치에 1조... 13년 전 약속 '코로나 맞춤형' 공헌 현실화
		0.4491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이건희 사회환원, 어떻게 나왔나
21	대학 기부(2)	0.3539	토지보상금5억 고려대에 쾌척
		0.2943	'얼굴 없는 천사' 얼굴 드러냈다...5년째 동신대 기부
		0.2684	“아내의 나라, 한국 대학에 유산 기부”
		0.2678	아버지의 유산, 아버지가 평생 몸담았던 부경대에 기부합니다
		0.2418	유산 50억 KAIST에 기부
22	문화/도서/인사 동정	.	.
23	해외 거부 기부	0.4004	“기부만 안했으면”...빌게이츠 세계 갑부 2위
		0.3645	대체 미국 부자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0.3426	버핏 효과 확산, 그러나 여전히 인색한 미국 부자들
		0.3405	세계는 지금 기부 열풍... 거부들 재산 사회 환원 잇달아
		0.2955	미국 '슈퍼부자'들은 죽으며 어떤 재산을 남길까
24	문화/도서/인사 동정	.	.
25	문화/도서/인사 동정	.	.
26	문화/도서/인사 동정	.	.
27	문화/도서/인사 동정	.	.

28	시민 기부(2)	0.5494	'전주 얼굴 없는 천사' 올해도 나타나... 22년째 선행
		0.5476	[아직 살만한 세상] 한푼 두푼 모은 돼지저금통... 19년간 6억 기부한 '천사'
		0.4944	"도난→회수"...우여곡절 끝 '전주 천사' 20년간 6억7천만원 기부
		0.3773	'10원짜리 동전부터 5만원권까지'...'천사' 기부금 '6016만3510원'
		0.2862	창녕군, 연말 한파 녹이는 기부행렬 이어져
29	문화/도서/인사 동정	.	.
30	문화/도서/인사 동정	.	.

〈그림 3〉은 T-SNE를 활용한 토픽별 의미 거리를 제시한 결과이다. 토픽의 의미상 거리 확인을 통해서 앞에서 제시한 토픽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특징적인 토픽을 중심으로 결과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에서 좌측의 산점도는 2차원의 공간에 기사문 내용의 유사성을 중심으로 각 기사를 점으로 표시하여 제시한 것이다. 우측의 그림은 이를 다시 앞서 제시한 토픽 번호로 표시한 것이다. 비교 검토의 편의를 위해 기사문의 수가 많은 경우는 글자의 크기를 더 크게 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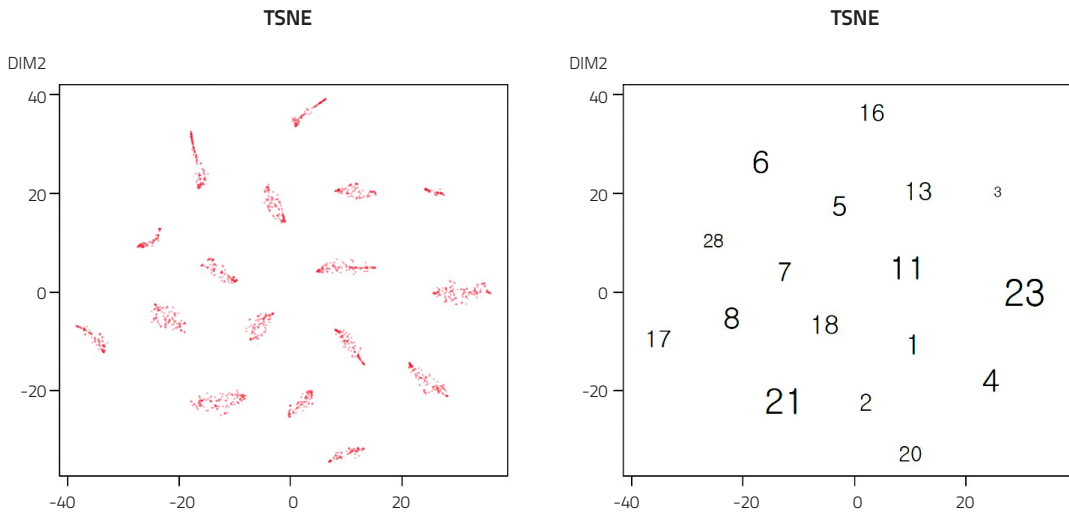
그림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처럼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토픽23은 앞에서 해외 거부들의 유산기부 관련 소식을 전하는 내용임을 확인하였다. 토픽23과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 토픽4는 일반 시민들의 기부 관련 주제로 유산기부 주체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토픽23과 거리를 두고 가족 갈등을 다루고 있는 토픽17이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두 토픽의 내용상 이질적 성격에 의해 의미상 거리가 멀게 위치한 것으로 보인다. 토픽17과 가장 가까운 토픽8은 상속과 관련한 갈등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가깝게 위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의미상 분포에서 중앙에 위치하는 경우는 여타의 토픽들과 겹치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규모는 크지 않지만 분포에서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토픽18번의 경우 앞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유산기부에 대한 소개와 사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른 토픽과의 공통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T-SNE를 활용한 토픽 간 의미상 거리에 대한 분석 결과는 토픽을 묶는 엄밀한 기준을 제시한다기보다는 토픽의 성격을 의미상 거리라는 측면에서 이해하고 토픽 모델링 결과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토픽을 묶어 의미상 위계 구조를 다루는 것은 이론적, 해석적 과정이 필요한데 본 연구에는 문헌 검토에서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어서 토픽의 의미 구조를 정리하고자 한다.

〈그림 3〉 T-SNE를 활용한 토픽별 의미 거리



〈그림 4〉는 의미가 유사한 토픽을 묶어 위계적으로 재구성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의미상 위계 구조는 앞서 문헌 검토 결과를 토대로 “사회 전반의 성숙”, “기부 문화 성숙”, “가족주의 습속 극복”으로 나누었다. 사회 전반의 성숙을 다루고 있는 토픽은 다시 “부의 책무성”, “의미 있는 마감”으로 분류했다. 기부 문화 성숙과 관련해서는 “소개/관심”, “모금 기관”, “법제도 환경”으로 나누어 정리했다. 가족 문화와의 충돌을 다루고 있는 토픽 그룹은 하나의 토픽만 포착되었기 때문에 세부 구분이 이뤄지지 않았다.

토픽 구성은 문헌 검토에서 살펴보았던 유산기부와 관련된 주요 요인들과 전반적으로 일치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는 각 요인들의 성숙 수준과 별개로, 적어도 내용적 측면에서 유산기부와 관련된 논의가 한국 사회에서 일정 수준 체계를 갖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4〉 토픽의 의미 구조



2) 토픽 구성의 시계열 변화

〈그림 5〉는 토픽 구성의 전반적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토픽과 시기별 텍스트의 분포를 전반적으로 제시한 결과이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서 시기는 3년 단위로 묶었다. 각 셀의 크기는 해당 시기와 토픽에 속하는 텍스트의 상대적 규모를 의미하며, 실선의 진한 셀일수록 확률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텍스트의 양이 많은 것으로, 반대로 점선의 진한 셀일수록 확률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텍스트의 양이 적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각 시기별로 확률적으로 유의미하게 큰 규모를 차지하는 셀은 토픽의 명칭을 별도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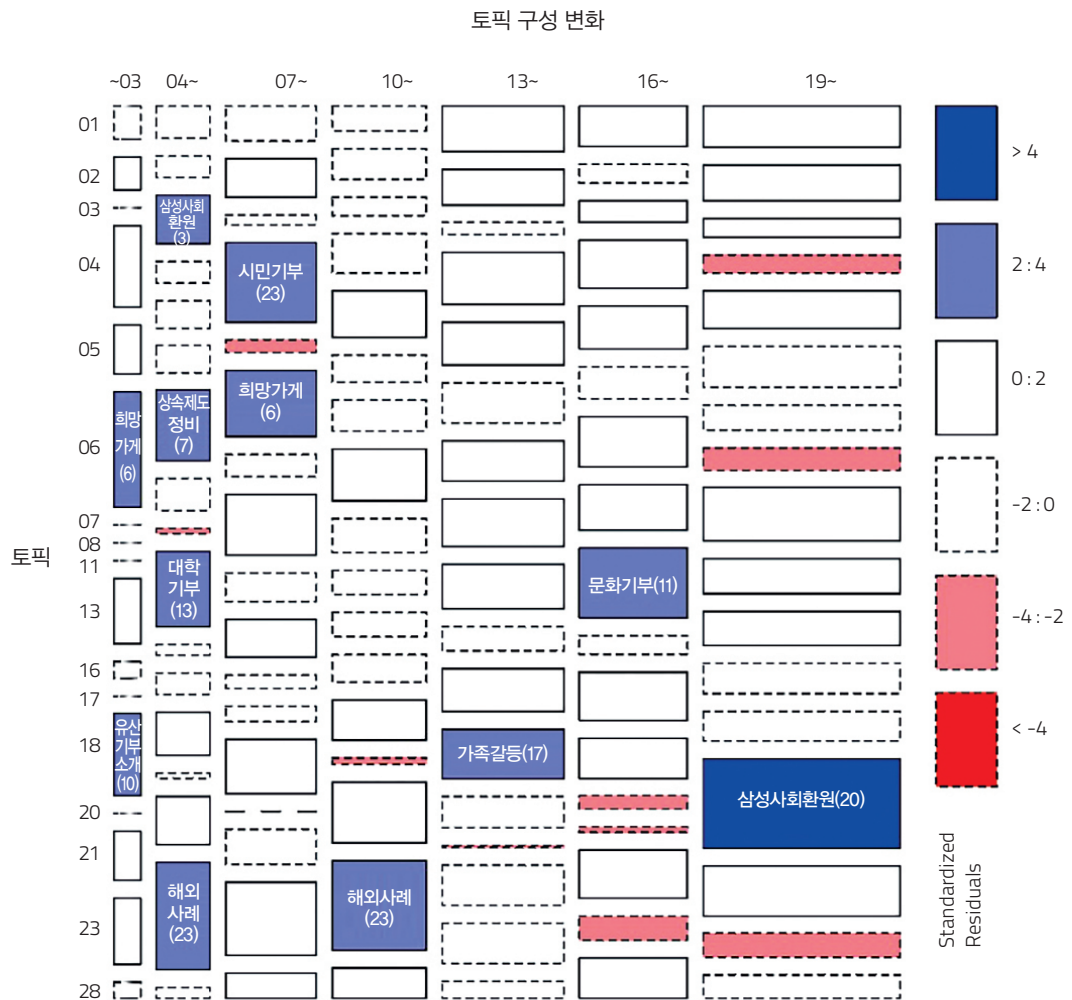
그림에서 전반적으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유산기부에 대한 기사는 양적으로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기사문의 꾸준한 양적 증가는 총량적 수준에서 유산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일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시기별로 토픽 구성의 특징적인 측면을 확률적으로 유의미하게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토픽을 중심으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분석의 초기 시점부터 2006년까지는 한국 사회에서 유산기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주제가 다양해지는 시기적 특성을 보인다. 2003년 이전 시점의 경우 “희망가게”와 “유산기부 소개”에 대한 주제가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 시점에 유산기부에 대한 한국 사회의 관심이 시작되었으며, 그 지점에 “희망가게” 사례가 있었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어진 2004~2006 시점에서는 유산기부와 관련된 토픽이 보다 다양해지는 패턴이 관찰됨을 알 수 있다. “삼성 사회 환원”, “상속 제도 정비”, “대학 기부”, “해외 사례”가 유의미하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책임지는 부, 관련 법제도의 정비, 기부의 다양화 등으로 유산기부에 대한 논의가 다양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해외 거부의 유산기부 사례는 이런 흐름에서 사회적 관심을 더욱 촉발하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2007년부터 2018년까지는 유산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시민사회 저변으로 확대되는 확산기의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2007~2009 시점에 “시민 기부”와 “희망가게”에 대한 주제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은 유산기부에 대한 논의가 시민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2018년까지 토픽 구성에서 큰 변화가 관찰되지는 않지만 이 시점 중반(2013~2015)에 “가족 갈등”이 유의미한 토픽으로 포착되는 점은 유산기부 논의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과정에서 필

수불가결하게 한국 사회의 강한 가족주의 전통과 마찰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5〉 토픽 구성의 전반적 흐름과 시기별 주요 토픽



2019년 이후 시점은 유산기부에 대한 기사문의 양이 이전의 점진적인 증가 추세와 달리 크게 증가한 시점이며, 이 시기의 핵심 토픽은 “삼성 사회 환원”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유산기부의 특성상 큰

규모의 기부가 특정 기업을 중심으로 이뤄질 때 관련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될 수 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시점은 대규모 감염병 상황과 겹치기 때문에 이후의 사회적 변화가 유산기부에 대한 관심의 양적 측면이나 내용적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찰이 요망된다.

〈그림 6〉은 앞서 토픽을 상위 의미 단위로 묶은 토픽 그룹이 텍스트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검토한 것이다. 기사문이 대부분의 토픽에서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 비중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토픽 전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림 5〉는 〈그림 4〉에서 살펴 본 토픽의 시기별 전개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의의가 있다.

각 토픽 그룹의 상대적인 비중 변화는 일률적인 추세를 보이기보다는 시기별로 그 구성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미 있는 마감”의 경우는 시기별 파동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그 비중이 높아지면서 일정한 비중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한국 사회의 고령화 수준이 높아지는 가운데 보다 의미 있게 생을 마감하는 문제에 관심이 모아지면서 그 하나의 방식으로 유산기부에 대한 논의가 늘어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유산기부에 대한 안내와 사례 등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내용인 “소개/관심”은 분석 초기 시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이후는 그 비중이 빠르게 감소해서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유산기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를 단순하게 안내하는 토픽의 중요도가 낮아졌기 때문으로 이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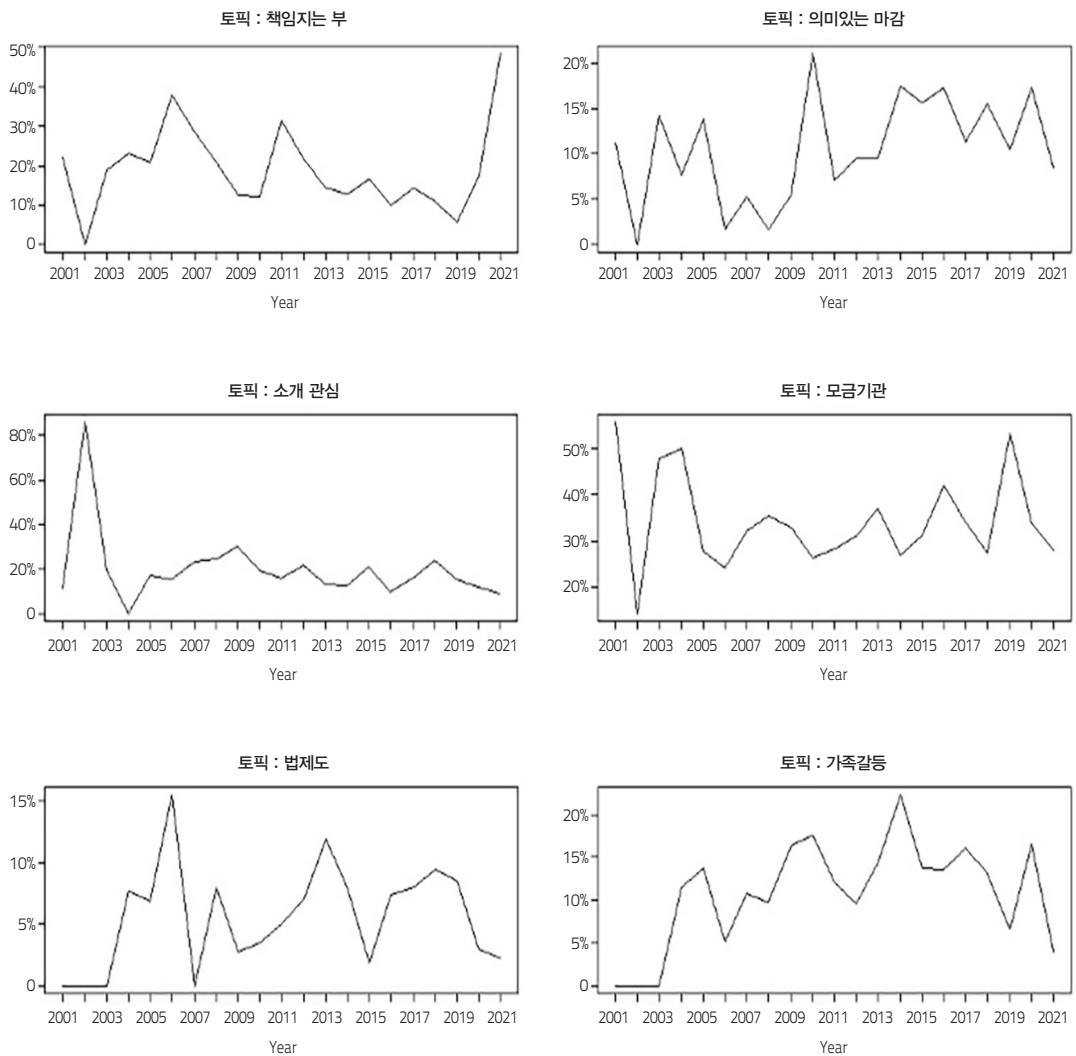
모금 기관의 역할은 특히 초반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일정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다가, 최근 들어 다시 비중이 높아지는 특징을 보인다. 이것은 앞서 토픽별 비중 변화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초기 시점에 “희망가게”와 같은 활동이 유산기부와 관련해 중요한 의미를 지니면서 다양한 유산기부 사례와 방식이 제안되면서 일정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책임지는 부”의 경우는 특정한 시점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패턴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최근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특정 기업을 중심으로 큰 규모의 유산기부 움직임이 있을 때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는 패턴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제도” 또한 특정 시점을 중심으로 비중이 일정하게 높아지는 패턴을 보이는데, 유산기부와 관련된 법적 정비가 이뤄지는 시점을 중심으로 관심이 모아지는 특성이 드러난 것으로 판단된다.

“가족갈등”에 대한 내용은 유산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시점과 궤를 같이하면서 비

중이 높아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산기부 논의의 확산과 가족 중심적 한국 문화 사이의 마찰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사정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최근 시점에 관련 비중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다른 토픽 그룹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책임지는 부”의 높은 점유율에 의한 것으로, 이후 변동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그림 6〉 토픽 그룹별 상대적 비중의 변화



5. 결론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유산기부 논의가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는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유산기부는 기부의 한 방식으로서 지니는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서 기부 문화는 물론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와의 관련성을 살펴볼 수 있는 현상이다. 여기서는 그와 같은 변화를 사회 전반의 성숙, 기부 문화의 심화, 한국적 특수성을 반영하는 가족주의의 극복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하고, 실증 자료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실증 관찰은 2001년 이후 약 20여 년간 유산기부를 다루고 있는 언론 기사문을 수집하여 토픽 모델링을 중심으로 토픽의 성격과 토픽 비중의 시계열적 변화를 관찰했다. 주요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사회의 유산기부 논의에서 사회 전반의 성숙을 드러내는 주제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회 전반의 성숙을 드러내는 주제는 기업인을 중심으로 전개된 자본의 사회적 책무성과 관련된 측면과 생을 어떻게 의미 있게 정리할 것인가라는 두 측면으로 크게 대별하여 살펴 볼 수 있었다. 전자는 기부 규모가 큰 기업인의 유산기부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다면 후자는 유산기부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인식과 관련성이 높다. 따라서 토픽의 상대적 비중 변화 또한 전자의 경우는 특정 기업인의 유산 기부 사례를 중심으로 변화가 관찰된다면, 후자는 점진적으로 비중이 확대되면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추세를 보였다. 유산기부에 대한 관심과 실천의 증대는 한국 사회의 성숙을 드러내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

둘째, 유산기부 논의의 전개 과정에서 비영리 모금 단체들의 역할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문헌 검토에서 정리한 것과 같이 유산기부는 특성상 모금 단체에 대한 투명성과 역량에 대한 신뢰가 기부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산기부 논의 확산은 관련 단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확대와도 관련된다. 특히, 토픽의 시기별 구성 변화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희망가게”로 상징되는 모금 단체의 역할이 한국 사회에서 유산기부가 논의되기 시작한 시점에서 함께 등장하고, 이후 논의 확산 시점에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문헌 검토에서 유산기부에 관한 개인의 결정에서 가족 구성원으로 주어지는 역할과의 마찰이 생길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특히, 가족 구성원으로서 의무와 역할을 강하게 강조하는 한국의 가

족주의 습속은 한국 사회의 유산기부 확산에 중요한 도전 요소가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분석 결과는 가족과의 갈등을 다룬 토픽이 유산 기부 논의의 확산 과정에서 그 비중이 커지고 있음을 드러낸다. 유족이 유산기부 결정에 반발하거나 유족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 유산기부를 의도적으로 활용하는 상황은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있다. 중요한 점은 가족 중심주의 문화의 한계를 적절하게 극복하는 가운데 기부 행위를 둘러싼 가족 간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놓고 한국 사회 기부 문화 확산에 필요한 두 가지 실천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기부 활성화에 모금 단체의 역할이 전반적으로 중요하지만 유산기부는 사후에 이뤄지는 계획된 기부라는 측면에서 모금 단체의 특히 높은 신뢰가 필요하다. 즉, 모금 단체의 투명성, 그리고 기금 활용 기획과 집행에 있어 높은 수준의 역량을 요구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과 같이 한국의 주요 모금 단체들은 유산기부의 도입에 중요한 기여를 했으며, 유산기부에 대한 사회적 논의 확산은 이들 단체의 신뢰, 그리고 역량 강화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유산기부의 사회 전반에 걸친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서는 기금 운영 기획과 운영에서의 투명성, 그리고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면서 유산기부 문화가 특수한 계층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뜻이 있는 다양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음을 알리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문헌 검토에서도 살펴 본 바와 같이 유산기부를 까다롭거나 특수한 기부 형태로 인식하는 것이 개인의 선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한국 사회의 가족주의 습속은 유산기부와 관련해서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유산기부를 고려하고 있거나, 결정을 내리고자 하는 참여자들이 이와 같은 갈등을 최소화하고 심리적 부담 없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함께 고민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서 유산기부가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된다면 강한 가족주의 전통에 따른 공동체적 연대 의식의 약화를 경험해 왔던 한국 사회가 한층 더 성숙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 강철희, 이종은, 배민경. (2009) “우리나라 시민의 유산기부의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36(2), 5 - 32.
- 박은정, 조성준. (2014) “KoNLPy: 쉽고 간결한 한국어 정보처리 파이썬 패키지”, 제26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 처리 학술대회 논문집.
- 송재룡. (2008) “한국사회의 자살과 뒤르케임의 자살론: 가족주의 습속과 관련하여”. 사회이론, 34, 123 - 162.
- Blei, D. M., Ng, A. Y., & Jordan, M. I. (2003). Latent dirichlet allocation. *Journal of Machine Learning Research*, 3, 993 - 1022.
- Friedman, B. M. (2006). The Moral Consequences of Economic Growth. *Society*, Jan/Feb, 9, 15-22
- Griffiths, T. L., & Steyvers, M. (2004). Finding scientific topic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01, 5228 - 5235.
- Pelozo, J., & Steel, P. (2005). The price elasticities of charitable contributions: A meta-analysis. *Journal of Public Policy & Marketing*, 24(2), 260 - 272.
- Sargeant, A., Hilton, T., & Wymer, W. (2006). Bequest motives and barriers to giving: The case of direct mail donors. *Nonprofit Management and Leadership*, 17(1), 49 - 66.
- Van der Maaten, L., & Hinton, G. (2008). Visualizing data using t-SNE. *Journal of machine learning research*, 9(11), 2579 - 2605.
- Wiepking, P., Scaife, W., & McDonald, K. (2012). Motives and barriers to bequest giving: Motives and barriers to bequest giving. *Journal of Consumer Behaviour*, 11(1), 56 - 66.
- Wilberforce, S. (2001). *Legacy fundraising: The art of seeking bequests*. London: Directory of Social Change.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2022년 기획연구 보고서



비매품/무료



9 788993 842593

ISBN 978-89-93842-59-3